

포스트모던 시대의 치료적 접근을 활용한 성경적 상담의 효과적인 적용 방법 연구

최금순*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성경적 상담이 현재시점에서 좀 더 성경적이 되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경적 상담에서 부단히 검토해야 할 것은 성경의 충분성이 아니라 상담자들의 시대적 제한성이라 생각한다. 이는 상담의 언어가 시대적 배경과 동기를 가진 것으로 여전히 변천하는 시대의 패러다임 안에서 구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성경적 상담은 내담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과 죄의 뿌리를 찾고 회개하여 변화하도록 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개인과 내면상태를 중요시하는 접근을 해왔다. 상담의 실제에서 성령의 역사는 내담자의 삶과 구체적으로 연결되기보다 말씀이나 상담자라는 도구에 더 의존된 경향이 있었고,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상담에 직접 활용하는 것은 미약하였다. 이에 반해 포스트모던 시대의 치료적 접근에는 내담자의 삶의 여정을 주된 소재로 삼아 비전문가인 외부사람들의 다중적이고 다방향적인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과정들이 제시된다. 이는 해석의 차원이기보다는 수집의 차원으로 무엇을 들고자 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경적 상담과 포스트모던 시대의 치료적 접근의 듣기언어를 검토하여, 내담자의 인생여정을 성령의 역사로 들으며 공동체 안에서 더 풍성해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좀 더 성경적이 되는 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심단어: 성경적 상담, 성경, 성령의 역사, 내담자의 인생여정, 외부 사람들

• 논문 투고일: 2015년 10월 12일

• 논문 수정일: 2015년 11월 11일

• 게재 확정일: 2015년 11월 13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www.kci.go.kr

I. 여는 글

성경적 상담은 그 자체로 독특한 상담접근법으로서,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반심리학의 원리와 방법이 아닌 성경의 원리와 방법을 세우려는 노력이다. 성경적 상담을 기독교 상담으로부터도 날카롭게 분리했던 Jay E. Adams¹⁾로부터 최근의 JBC(*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기고자²⁾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적 상담자들의 한결같은 초점은 '성경'에 있다. 성경은 모든 성경적 상담자들의 생각과 실천을 한 데 묶는 총체적 기준이며 출처로서, 인간과 돌봄에 대한 이해가 모두 성경으로부터 나온다.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적 상담이란 세상에 없던 어떤 새로운 접근 이론을 세우는 작업이라기보다 성경 안에 이미 나타나있는 진정한 인간 실존의 경험을 '상담'이라고 표현되는 현대적 용어에 맞게 설명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³⁾ 이는 일반상담이 발견해 내는 인간 돌봄에 대한 주장들에 대응하여 성실하게 응답해가면서 동시에 성경에 나타난 독특한 돌봄의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인 것이다.⁴⁾

-
- 1) Jay E. Adams, *The Christian Counselor's Manual*, 정정숙 역, 『상담학개론』(서울: 베다니, 1994), 54. “성경은 크리스찬 상담자의 전제와 원리를 산출해내는 일차적이고 규범적인 근원이다.”
 - 2) William R. Edwards, “Redirecting the Church’s Drama,”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28, no. 2(2014): 67. “성경은 교리와 삶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데 충분하다.”
 - 3) 황규명,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서울: 바이블리더스, 2013), 16-17. 황규명은 “성경적 상담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상담’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웨스터 사전과 베이커 심리학 사전에 나타난 상담에 대한 현대적 정의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경적 상담을 설명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성경에서는 이미 그 근원을 창세기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 4) 이러한 작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매스터 신학교를 세우고 심리학과를 성경적 상담학과로 개칭한 John MacArthur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전쟁 중에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의 직감과 경험 그리고 욕망들이 진리와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미 성경-그 문제에 관한 혹은 다른 것들-의 참된 의미를 결정하고 고정시켜왔다. 그 의미를 깨

그런데 성경적 상담의 실천에서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경의 충분성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삼고 사역하는 성경적 상담자들의 시대적 제한성이라 생각한다. 시대적 제한성이라 함은 돌봄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방법들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중에도, 기독교 신앙의 자원들이 이를 위해 충분함을 지속적으로 응답해야 할 처지에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성경적 상담은 형성과정 자체가 시대적 배경과 동기, 즉 시대적 패러다임과 그 언어로부터 나왔으며 여전히 그 영향을 받고 있다.⁵⁾ 이 시대가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상담의 원리와 방법들은 성경적 상담 안에서 적극적으로 비판되고 실천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David Powlison은 성경의 모델과 우리 시대의 요구를 대할 때 가져야 할 중요한 세 가지 과제 중 마지막 과제로서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다른 불완전한 모델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으며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그는 이 과제를 앞의 두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때 의미가 있음을 강조한다.⁶⁾ 이러한 소명의 종속적 관점은 분명하게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실행의 순서를 결정짓는 것처럼 이해될 때는 도리어 능동적인 작업을 지체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특히 방법론의 면에서 일반상담의 성공을 검토하는

닫고 적용하기 전에 적절하게 해석하는 것이 해석자의 과제이다.” John MacArthur, *The Truth War*, 신성욱 역, 『진리전쟁』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22, 25.

- 5) Jay E. Adams가 성경적 상담을 세우게 된 배경에는 성경적 돌봄을 ‘상담’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며 접근해가도록 영향을 준 당대의 심리학자들과 그들에 대한 Adams 개인의 경험들이 있다. 김준수는 성경적 상담의 발전이 ‘목회심리치료에 대항하여’ 일어났음을 언급한다. 전요섭 외 11인,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 (서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2004), 10, 25-27.
- 6) Mark R. McMinn & Timothy R. Phillips, eds., *Care for the Soul*, 전요섭 외 공역, 『영혼돌봄의 상담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48-63. Powlison은 첫 번째 과제는 성경적 진리의 명료화와 영혼 돌봄에 대한 체계적인 실천신학 개발이요, 두 번째 과제는 대안적 모델에 대한 재해석과 설명이며, 세 번째 과제가 불완전한 모델로부터의 배움이라 하여 순위를 두고 다뤄야 함을 주장한다.

작업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Powlison이 제시한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종합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dams조차 합리적인 심리학의 유용성에 대해 “심리학이 상담에 필수적인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성경에서 더욱 순수한 형태로 발견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상담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은 성경에 더욱 온전하게 들어 있는 그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상담자들에게 깨우쳐 주는 점”을 언급한다. 그러나 곧 “이 ‘메꾸는’ 기능이 유용할 수는 있으나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고 하여 성경적 상담자들이 부단히 노력해야 할 동기를 약화시켜버린다.⁷⁾

일반상담의 시도들을 적극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 중 하나는 Adams가 말한 대로 일반상담의 새로운 시도들이 이미 성경의 신앙역사에서 흔하게 일어났던 실천들이었음이 드러나서 성경적 돌봄의 진정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방법적인 면에서 더 성경적인 실천들을 일반상담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번 고찰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인해 상담의 구조와 방법에 대한 이전 방식의 많은 부분을 무너뜨린 해결중심 접근과 이야기치료 접근으로부터 더 성경적일 수 있는 ‘메꾸는’ 기능에 대한 몇 가지 반성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 검토의 대상은 내담자의 인생여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외부에 있는 사람들, 즉 공동체가 상담에 직접 참여하는 것의 성경적 타당성에 대한 것이다. 내담자의 인생이나 공동체의 중요성은 성경적 상담에서 꾸준히 강조해왔으나 상담의 실제에서는 그만큼 구체화되지 못하였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자는 이제까지 연구된 성경적 상담의 전제와 실재를 충실히 따르는 입장에서 출발하며 돌봄에 대한 성경적 핵심들을 좀 더 잘 적용할

7) Jay E. Adams, *How to Help People Change*, 이승재 역, 『완전한 변화를 위하여』 (서울: 은혜출판사, 1995), 65.

수 있는 자리를 넓히고자 시도할 것이다.⁸⁾ 여기서는 역사적인 사조의 흐름 속에 있는 포스트모더니즘과 그의 반 기독교적 측면에 대한 비판을 따로 다루지 않고, 논의하고자 하는 상담적 개념에 한해서만 비판적으로 다룰 것이다.

II. 펴는 글

1. 성경적 상담의 현주소

성경적 상담은 분명한 원리와 실재를 갖추고 있으며 절대적인 근거 아래 진행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국면이다. 여기에는 상담을 목회의 일부로 여기는 교회 지도자의 사역 이상으로 공동체 안에서 편만하게 나타나야 하는 일반 구성원들의 '서로'에 대한 기독교적 돌봄까지 포함된다. 본 장에서는 현재의 실천을 중심으로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근거와 구체적인 방법들 그리고 성경적인 돌봄의 특성을 위한 보완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변함없는 토대

성경은 성경적 상담의 변함없는 토대이다. 성경적 상담은 성경으로부터 상담이론과 방법을 정립하려는 시도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성경과 초대교회의 사역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상담의 목적은 내담자가 어떤 종류의 문제를 가져왔든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상담의 과정을 통하여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

8) 본 연구자의 입장을 명확히 한다면 Eric L. Johnson이 분류한 '진보적 성경적 상담'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Eric L. Johnson, *Foundation for Soul Care*, 전요섭 외 역, 『기독교심리학』(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136-137.

에서 온전히 성숙하도록 돕는 것이다.⁹⁾ 이러한 성숙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과 영적인 성장을 돕는 것, 회복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등으로 표현된다.¹⁰⁾

상담에 있어서 성경의 중심성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의 근거가 성경에서 나온다는 의미로, “창조주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안내자요 교사로서 성경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만 자신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알려주신다”¹¹⁾는 John Calvin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길은 성경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혹은 그의 말씀을 삶의 법칙으로 삼고 살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¹²⁾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유일하게 장착해야 할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과 자신,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해를 세우고 교정하는 기준이요 계속하여 형성해나갈 변화의 출처이다. 이는 “모든 관점 속에 하나님을 포함시킨다”는 행동 표현으로 기술할 수 있는데, 상담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개념적인 틀과 방법론, 사회조직 그리고 변증학이 모두 성경으로부터 나온다.¹³⁾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주요 도구

9) 황규명,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 17-23.

10) Timothy S. Lane & Paul David Tripp, *How People Change*, 김준수 외 공역,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9), 41; David G. Benner, *Strategic Pastoral Counseling*, 전요섭 역, 『전략적 목회 상담학』 (서울: 은혜출판사, 1991), 40; Paul D. Tripp,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황규명 역,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 (서울: 디모데, 2007), 23.

1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I. ed. John T. McNeill, 성서서원 편집부 편역, 『새 영한 기독교 강요 상』 (서울: 성서서원, 2005), 145.

12) 서철원, 『하나님의 구속경륜』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9), 18, 21.

13) David Powlison, *Seeing with the New Eyes*, 김준 역, 『성경적 관점으로 본 상담과 사람』 (서울: 그리스심, 2009), 8-11; Timothy S. Lane과 Paul D. Tripp은 궁극적인 영적 나침반으로서 성경에 대해 “성경은 일상의 길을 날아올라 총체적 조망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성경은 궁극적인 안내자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

이다.¹⁴⁾

성경이 중요하다하여 그것이 목표가 되지는 못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만드시고 이 삶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여준다. 이를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마 22:37-39)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것으로(롬 8:29; 고후 3:18) 결론지을 수 있다. 진정한 기독교 영혼 돌봄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모든 치유의 시도를 그리스도에게 붙잡힌바 되게 하여서(고후 10:5)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여야 한다.¹⁵⁾ 황규명은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나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 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¹⁶⁾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정체성의 근거요(요 1:12; 3:16), 본질이며(갈 2:20), 성장의 목표이고(엡 4:13), 소망이자 뜻대이며 우리의 최종 관심사이다.¹⁷⁾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은 성경적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표현되며 적용되어야 하는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예수께서 받으신 참혹한 고난이 ‘돌봄의 핵심’을 이루며 고통의 의미를 생산하는 기초가 되기에 그렇다.¹⁸⁾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성령을 보내시어 믿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하고도 실천적인 지혜를 부여하여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한다.”고 말한다. Lane & Tripp,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166.

14) Tripp,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 46.

15) Johnson, 『기독교심리학』, 59, 253.

16) 황규명,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 99.

17) John R. W. Stott는 성경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의 행동거지에서 분명히 우리의 최종관심사는 성경 자체에 있지 않고 성경이 증거 하는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밝히 나타내보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John R. W. Stott, *Christ the Controversialist*, 윤종애 역, 『변론자 그리스도』 (서울: 한국성서유니온, 1997), 59, 60.

18) Roger Hurdling, *The Bible and Counseling*, 문희경 역, 『성경과 상담』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3), 126-127.

는 자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 율법을 새기시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욕망을 주신다(고전 2:10-16).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됨으로써 기본적인 영적 DNA가 급진적으로 바뀌게 되며 이로써 새로운 자원과 잠재력을 갖게 된다.¹⁹⁾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내주 사역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원동력이다. “상담은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외쳤던 Adams가 특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꼭 같은 종류의 다른 상담자라는 것과 유능한 인간 상담자의 조건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다.²⁰⁾

이 외에 성경적 상담의 변함없는 토대로서 성경적 인간 이해로 말미암아 나오게 된 죄와 회개, 용서, 정체성의 변화, 공동체 등의 중요한 주제들이 있고, 상담 자원으로서의 성경, 기도, 성찬, 고백, 교제 등의 가치들을 언급할 수 있다.

2) 성경적 상담의 실제

성경적 상담자들은 인간의 ‘마음’이 상담이 이루어지는 본질적인 자리라고 언급하며, 효과적인 개인상담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인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먼저 그것이 필요한 곳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한다.²¹⁾ 동시에 성경이 지적하는 인간의 핵심 문제는

19) Lane & Tripp,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297, 300, 332.

20) Jay E. Adams, *Competent to Counsel*, 정정숙 역, 『목회상담학』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1), 55-56.

21) Tripp,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 93-95; 김준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면서 “타락으로 인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인간의 마음의 변화였다”고 지적한다. 김준수, 『마음의 치유』(서울: 디모데, 2008), 26; 황규명은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상담이 성경적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언급한다. 전요섭 외 11인,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 44.

죄로서, 특히 타락한 이 세상과 다른 이들의 죄로부터 받는 영향 이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죄라고 여긴다.²²⁾ 여기서는 마음의 변화를 위한 성경적 상담의 대표적인 모델로 ‘큰 그림’ 모델과 Paul D. Tripp이 정리한 4단계 모델을 살펴보고자 한다.

큰 그림 모델은 인간 마음의 생각과 동기에 대한 싸움에 대하여 성경의 많은 구절들 속에서 발견되는 인간에 대한 각 그림들을 체계적으로 엮어 낸 것으로, 이를 통해 거울처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비춰볼 뿐 아니라 스스로를 진단하여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게 해준다. 그림들의 각 요소는 다음과 같다. ‘이 타락한 세상을 사는 인생은 어떤 모습인가?’, ‘타락한 인간이라는 존재로서의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모든 것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가?’²³⁾ 큰 그림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조감도의 역할을 하면서 가르치고 동기화시키며 확신시키고 또한 인도한다. 이 조감도는 일상에서의 변화의 주된 요소 네 가지, 곧 ‘더위-가시-십자가-열매’를 포착하고 있다. ‘더위’는 개인이 일상에서 처한 상황으로 곤경과 축복 및 유혹의 상황을 뜻한다. ‘가시’는 상황에 대한 불신앙적 반응으로 행동과 행동을 유발한 마음 및 행동의 결과이다. ‘십자가’는 구속하심의 영광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와 정화, 변화의 능력이다. ‘열매’는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신앙적 반응으로 행동과 새로워진 마음, 추수의 결과로 표현된다. Timothy S. Lane과 Paul D. Tripp은 이것이 인간 존재 및 그 행동의 동기에 대한 정직하고도 통찰력 있는 매우 명쾌한 견해로서 희망과 용기를 더한다고 평가한다.²⁴⁾ 이 모델의 기초를 제공한 Powlison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22) Lane & Tripp,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44.

23) Lane & Tripp,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168-171.

24) Lane & Tripp,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173-182.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살펴보는 엑스레이 질문들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의 모든 문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또한 성화의 차원을 모두 다룰 수 있음을 강조한다.²⁵⁾

Tripp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변화의 도구 역할을 감당하는 네 가지 방식을 소개한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모든 것의 목표는 마음의 변화여야 한다는 것과 주님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사랑하라, 알라, 말하라, 행하라’는 단계를 나타내는 과정이기보다는 성경적 사역의 주요 요소를 말한다. ‘사랑하라’는 변화의 과정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알라’는 내담자의 마음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하여 내담자에게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며, ‘행하라’는 내담자가 배운 것을 가지고 매일의 삶과 관계들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깨달음들을 적용하는 것이다. Tripp은 이러한 과정이 단지 공적인 사역의 측면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 각자의 삶의 양식이라고 덧붙인다.²⁶⁾

3) 구체화되지 못한 자리들

성경적 상담자들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담자와 그의 문제를 보고자하며 문제 해결 또한 인간적인 안위나 성장이 아닌 성경의 목표를 향해 내담자를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몇 가지 점에서 성경적인 방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될 필요가

25) Powlison, 『성경적 관점으로 본 상담과 사람』, 190-212.

26) Tripp,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 162-167. Tripp이 ‘삶의 양식’이라는 말을 통해 상담이라는 공적인 사역을 일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발휘해야 삶으로 제시하는 것은, 상담 관계를 수단으로만 보는 일반상담과 가장 크게 대조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Irvin D. Yalom은 “비록 심리치료가 밀접한 관계형성을 요구하지만 그 밀접한 관계형성이 목적은 아니다. 그것은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라고 분명하게 구분하며 삶의 대용물로 여기지 말 것을 경고한다. Irvin D. Yalom, *The Gift of Therapy*, 최용용·전성문·김창대·최한나 역, 『치료의 선물』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7), 197-198.

있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지혜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과 원리인 창조질서를 보는 안목이 깊어져야 한다.²⁷⁾ 성경의 원리와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을 표면적으로 따르는 것 이상의 적용이 필요하다. 성경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치유방식을 현재의 성경적 상담이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가?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인물들의 경험과 예수께서 직접 쓰셨던 방식들 중에 아직까지 묻혀 있는 것은 없는가?

첫 번째로 검토하고자 하는 자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온 내담자의 삶의 연속성에 대하여 특별히 그의 신앙의 여정에 대하여 문제를 호소하는 시점을 중심으로 갑자기 내담자 인생의 일부를 단절된 방식으로 다루는 자세이다. 현재 겪고 있는 문제와 이제까지 계속되어 온 내담자의 신앙의 삶을 연결하는 것이 미약하여, 문제가 있는 중에도 여전히 성공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계속되는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다. 상담자의 관심은 내담자의 신앙의 여정에 있기보다 내담자의 삶에 드러난 문제 증상과 '왜곡되고 비성경적인 생각 속에 있는 잘못된 행동의 씨앗을 찾는 것'²⁸⁾에 집중된다. 이것은 내담자의 인격의 일부만을 다루는 것이다. 상담자는 죄와 관련된 내담자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 내담자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반복해서 일깨워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적 자원에 대해 끊임없이 깨닫게 한다. 또한 내담자가 하나님을 찾으며 도움을 찾아

27) 안경승, 『지혜로운 돌봄』 (경기도 양평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13), 27-28. 안경승은 “지혜로운 돌봄은 창조질서에 기초와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지혜롭게 위해서는 그 지혜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과 원리인 창조질서를 소유해야 한다. 그것이 돌보는 자의 삶에서 경험되고 확증되어야 한다. 돌보는 자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돌봄을 받는 자의 삶에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적절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돌보는 자와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28) Tripp,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 280.

나서는 자가 되기 전에는 진정한 내담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다보니 내담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마치 반복해서 개종을 해야 하는 사람처럼 대한다.

현재의 성경적 상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담자의 삶이 곧 성령의 지도와 내주하심의 역사라는 생생한 증거들을 상담과정에 모두 구체화하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다. Tripp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그것은 주님의 이야기이다. 우리의 이야기 역시 위대한 구속 이야기의 한 부분이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분께 속해 있고 그분을 가리킨다”고 말하지만, 내담자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 그의 질문은 구속적 관점을 드러낸다고 하면서도 이런 질문의 목적이, “이것은 눈먼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방식을 보도록 돕는 것이다”고 하여 내담자의 죄된 부분만 편향되게 다룬다. 죄를 지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내담자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사역에 초점을 두는 질문은 부족하다.²⁹⁾ 성령께서는 지속적으로 내담자에게 역사하고 계셨으나 내담자가 문제를 만난 순간 그의 역사는 단절된 것으로 여겨져서 내담자의 회개가 있어야 비로소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표현된다. 결과적으로 상담에서 성령의 역사는 제한적으로 다뤄지는 것이다. 내담자의 삶에 지속됐던 성령의 역사는 외면되고, 대신 상담자를 통한 성령의 역사 또는 성경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만 언급된다. 그리스도의 은혜 또한 축소된다. 엑스레이 질문들은 문제에 대한 내담자의 이야기만 묻는다. 문제의 상황에서도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은 없다. 이런 현상은 엄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 문제 중심으로 내담자를 보기 때문에 일어나며, 전형적인 일반상담의 문제 중심 시각이 성경적 상담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9) Tripp,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 229, 254-261.

성경적 상담이 내담자의 죄를 중심으로 문제에 대한 탐색과정을 진행하다보니 그동안 내담자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었던 신앙적인 노력들이 외면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내담자가 문제를 안고 성경적 상담자를 찾아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의도적인 선택과 신학적인 해결을 원하는 신앙의 행위가 확인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상담자의 주의를 끌지 못하며, 내담자의 마음에서 미세하게나마 펼쳐지는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인생 이야기는 사장된다.³⁰⁾ 이러한 경향은 성경과 내담자의 삶을 연결시키는 데 제약을 가한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상담자와 동일시되거나 상담자의 자질을 알려주는 모범적인 사례로만 연구된다. 내담자 역시 그러한 삶의 방향을 추구하고 있던 그리스도인이었음이 간과되는 것이다.³¹⁾ 내담자의 실패의 동기는 엑스레이 질문으로 파헤쳐지는데 내담자의 신앙의 지향점은 질문되지 않고 이후의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한다.

다음으로는 공동체에 대한 피상적인 실천을 들 수 있다. 피상적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만큼 공동체를 직접 상담에 참여시키는 구체적인 과정이나 내용 및 방법들이 빈약하다는 뜻이다. 이는 복음주의 세계에서조차 개인에 강조를 두는 서구 문화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성경적 상담 역시 이러한 맥락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³²⁾ 성경적 상담자들이 공동체의 중

30) Benner, 『전략적 목회 상담학』, 68-72. Benner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목사를 찾아가는 뿌리 깊은 동기가 곧잘 제거된다고 지적하면서, 내담자들이 “먼저 목회적 도움을 선택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문제가 목회적 관점에서 보여지도록 원한” 것이라고 주저 없이 말한다.

31) Edwards, “Redirecting the Church’s Drama,” 59-69. Edwards는 고린도교회의 이야기에서 바울이 보였던 모범을 교회의 리더들이 따라야 할 역할로 강조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로서 바울이 보여준 모범은 상담자의 모범만이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내담자에게서도 찾아야 할 복음적인 반응으로 소개되어야 한다.

32) Rod Wilson, *Counseling and Community*, 김창대 역, 『상담과 공동체』(서울: 두란노, 1997), 34-36. Wilson은 “공동체는 복음주의적 세계에서는 특히 혼란스러운 주

요성을 인식하지만 실제의 상담과정에 공동체가 합류하거나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못하다. 성경의 강조처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개인으로 내담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치료적 도움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동체는 그들이 줄 수 있는 다양한 외부적 자원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야기 즉 성령이 각자에게 역사하셨던 개인의 하나님 중심 이야기들도 치료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³³⁾ 여기에는 도움의 양방향성에 대한 관점 또한 고려되어야 하는데,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도움을 받는 돌봄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행할 때에만 ‘서로, 피차’라는 성경적 특성과 성령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돌봄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를 개인 상담에 포함시키고 상담자 역시 내담자와 동일한 은혜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로서뿐 아니라 실행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³⁴⁾

제이다. 왜냐하면 복음주의 세계가 개인주의적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고, 공동체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기독 상담자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한다.

- 33) David Powlison, “How Does Sanctification Work? Part 2,”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27, no. 2(2013): 35–50. David Powlison은 신자들 인생의 평생에 걸친 하나님의 재제작 방법들의 다양함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찌할 바 모르는 불안한 인생 경험들 속에서 명백하게 반복해서 꾸준히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음을 사례를 들어 열거하고 있다.
- 34) Edward T. Welch, “Ten Ways Ordinary People Can Help Those with Psychiatric Problems,”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28, no. 2(2014): 22–38. Welch는 평범한 사람들이 정신병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10가지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다. 겸손과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도구로서 기도와 성경, 사랑 그리고 동정심이 강력하게 쓰일 수 있음을 언급한다. 그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성에 기반한 지혜로운 사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는 유용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방법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줄 수 있는 도움에 관한 것뿐이지 반대로 병든 자들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거나 그들로부터 배우는 방법에 대한 것은 아니다. 병든 자가 건강해지지 않은 답에야 ‘서로, 피차’ 도움 수 있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병든 자로부터 오는 도움도 알아차리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포스트모던 시대의 치료적 접근의 새로운 시도들

현대의 성경적 상담이 놓치고 있다고 판단되는 내담자의 삶의 여정과 지향점에 대한 관심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치료적 실천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상담자가 아닌 비전문적인 외부 사람들이 상담에 참여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치료적 효과들도 새로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나 기독교 공동체의 역사에서는 이미 이런 일들이 있어왔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경험들을 성경적 상담이 아닌 일반상담의 새로운 접근들이 치료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해결중심접근이나 이야기치료에서는 이전의 상담접근들이 묻지 않았던 내용을 질문함으로써 상담 과정의 새로운 측면을 드러낸다. 여기서는 그들이 던지는 질문과 초점을 통해 성경적 상담이 검토해야 할 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문제 발생 이전의 인생 여정에 대한 질문들³⁵⁾

해결중심상담은 문제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찾던 이전의 전통적인 견해와 다르게 귀납적인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즉 임상장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을 찾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리는 것이다. 모든 문제 상황에는 예외가 있으며 해결 상황을 구축하려면 이러한 예외상황을 찾아내는 것이 필수적이다.³⁶⁾ 일반적으로 목표와 해결책은 이미 내담자의 삶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내담자 스스로 이를 설정하고 정보도 제공하도록 한다. 차이를 가져다주는 질문은, 내담자가 문제가 있음에도 어떻게 견디어 왔는지, 삶 속에서 이미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35) Steve de Shazer, Yvonne Dolan, Harry Korman, Terry Trepper, Eric McCollum, & Insoo Kim Berg, *More Than Miracles*, 한국단기가족치료연구소 역, 『해결중심 가족치료의 오늘』(서울: 학지사, 2011), 24, “해결중심치료자에게 질문은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도구일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입방법이다.”

36) Insoo Kim Berg & Therese Steiner, *Childrens Solution Work*, 유재성 · 장은진 역,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해결중심상담』(서울: 학지사, 2009), 32-35, 55.

그리고 유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첫 회기 약속을 한 이후 이미 개선된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묻는 것이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주의를 실패 경험대신 이전의 성공경험에 기울이도록 해줌으로써 긍정적 기대감을 높이고 내담자가 자기 자신과 처지를 보다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라보게 한다.³⁷⁾

이야기치료자들은 다양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기 이야기를 다시 쓰게 하는데, 이는 내담자로 하여금 현재는 간과되고 있으나 잠재적으로 중요한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독특한 결과' 혹은 '예외상황' 이라고 하여 자기 이야기 속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출발한 내담자의 대안적 이야기는 내담자의 과거 경험에 뿌리를 둔 근거 있는 이야기로 자리 잡게 된다. 치료자는 내담자가 자기 삶에 존재하는 사건을 선별하여 그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한 사건과 자기 삶의 주요 주제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통해 나타난 삶의 목적에 가치를 부여하며,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과 주변 사람의 정체성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결론을 내리게 돕는데, 그 결론 가운데 많은 부분은 내담자의 삶을 제한해 온 결핍에 초점을 둔 것과 완전히 모순되는 특징을 지닌다. Michael White는 강력한 장애물에 관한 삶의 이야기를 인간의 가능성에 관한 방식으로 다시 쓰고 그 과정에 내담자를 참여시키는 게 효과적인 치료라고 말한다.³⁸⁾

이것은 문제가 결코 한 개인의 삶을 100% 모두 차지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³⁹⁾ 치료자들은 내담자의 힘없고 고통스럽고 병적인 장면을 구체화하거나 강화하지 않고 도리어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던 때

37) Fredrike Bannink, *1001 Solution-Focused Questions*, 조성희 · 신수경 · 이인필 · 김은경 역, 『1001가지 해결중심 질문들』 (서울: 학지사, 2015), 34-35, 80.

38) Michael White, *Maps of Narrative Practice*, 이선훈 · 정슬기 · 허남순 역, 『이야기 치료의 지도』(서울: 학지사, 2010), 89-90, 105, 113.

39) Alice Morgan, *What is Narrative Therapy?*, 고미영 역, 『이야기치료란 무엇인가?』 (서울: 청목출판사, 2015), 101.

와 상황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해 현재로부터 가까운 과거, 먼 과거 그리고 아주 먼 과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탐색한다.⁴⁰⁾ 이들은 내담자의 과거 인생 여정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주제를 형성해 갈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기에 내담자의 이전 삶은 치료의 핵심적인 자원이 된다. 이러한 시도는 내담자를 자기 인생의 주체로서 주관적 입장에서 자기 삶의 지향과 가치를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며 내담자가 이미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문제 중심 접근과는 다르게 내담자를 대하도록 도와준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치료방식들이 내담자의 삶 자체를 중요한 치료 자원으로 여기고 내담자의 특정 의도와 지향성의 가치를 격상시킨 점은 성경적 상담자들이 눈여겨볼 만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단순히 내담자의 긍정적 측면을 찾아내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성경적 상담의 내담자들은 성령의 내주하심 아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정체성과 지향성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로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야기하기’를 드러내야 할 자들이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된 동기를 찾고 회개에 이르는 과정 못지않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던 자기 삶의 발자취를 찾고 말하며 그러한 신앙 여정 중에서 자신의 문제를 보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을 상담자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수집된 인생자료가 말하고 있는 자기 신앙의 길 위에서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말이다.⁴¹⁾ 그러나 이야기치료와 성경적 상담의 두 모

40) White, 『이야기치료의 지도』, 114-127; 임상 사회복지사로서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치료 단계를 소개한 John R. Stillman은, 내담자들의 부수적인 이야기(subordinate story)는 인생 도처에 존재한다고 말한다. John R. Stillman, *Narrative Therapy Trauma Manual: A Principle-Based Approach* (St. Louis Park, MN.: Caspersen, 2010), 93.

41) 김수연은 이야기라는 모티브를 이용하여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 해석의 문제를 살펴 볼 때 “내담자의 이야기는 상담자의 새로운 안목에 의해서 다시금 해석되어야 할

텔은 인생이야기의 초점에 대해서 순수하게 교환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인생 이야기의 '의미'가 생성되는 출처가 하나는 '자신'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2)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것

포스트모던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로, 다원성 자체에 대한 절대적인 신봉으로부터 오는 '탈중심'의 현상과 거대담론의 해체가 문화전반에 걸쳐 나타난다.⁴²⁾ 패러다임의 전환은 일부 가족치료자들에게 체계(system)에서 스토리로 관심을 돌리게 했고, 치료의 초점을 역기능의 행동패턴으로부터 의미의 패턴에 주목하게 했으며, 치료적 개입을 계획하고 처방하는 것에서 질문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가족과 치료자 간의 위계의 벽을 무너뜨리고 점차 격식 차리기를 줄이면서 가족과의 협동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했다. 치료자들은 더 이상 자신을 고장 난 기계를 고치는 수리공이나 복잡한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을 이해하는 생태학자로 보지 않고, 내담자의 이야기 안에 존재하는 내담자의 지식과 경험을 드러내기 위한 질문을 할 기술을 갖고 있는 흥미로운 사람으로 보게 되었다.⁴³⁾

김인수(Insoo Kim Berg)와 Therese Steiner는 “우리는 스스로를 다른 문화에 대한 전문가로 인식하지 않는다... 내담자가 자신의 상황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서 더 전문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질

이야기이다... 이 명령은 내담자에게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해석의 대변자로 서있는 상담자에게는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라고 하여 여전히 상담자 중심의 전문성을 앞세우고 내담자의 이야기는 단서 정도로 여긴다.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의 이야기에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보고자 한다. 김수연, “기독교상담에서의 이야기 해석”,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제8권(2008): 101-122.

42)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서울: IVP, 2005), 112-113.

43) Jill Freedman & Gene Combs, *Narrative Therapy*, 김유숙·전영주·정혜정 역, 『이야기치료』(서울: 학지사, 2009), 33-43.

문하는 과정을 통해 내담자를 전문가로 인정할 수 있으며, 내담자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는 임상작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⁴⁴⁾ 이야기치료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을 청하는 사람이 치료여행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전문가로서 그들 삶의 중심에 서게 하는 정중하고 비난을 피하는 접근으로 상담을 받는다.⁴⁵⁾

포스트모던 시대의 치료적 접근들은 상담에서 상담자의 전문성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있으며 그것이 내담자의 변화를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상담자는 중심에서 비껴가고 내담자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이것은 현 시대가, 모든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오히려 정형이 비판받거나 의심되는 문화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현상이다.⁴⁶⁾ 이러한 중심성의 이동에서 '선택은 내담자가 하는 것이고 이는 무엇이라도 타당하며 옳다'는 식의 비기독교적 측면은 성경적인 눈으로 비판되고 걸러져야 하지만, 성경적 상담 또한 '상담자의 전문성과 중심성'이라는 땃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검토하는 편광판으로서의 기능은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연 내담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해 상담자의 전문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의 전부이겠는가?

이제까지 성경적 상담에서 상담자는 사람들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권면하며 가르치고 조언과 충고를 전하는 사람으로 여겨왔다.⁴⁷⁾ 상담자는 상담을 이끄는 자로서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인간의 고통을 잘 이해해야 하며, 내담자를 돕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기독교적 해석의 대변자요, 오랫동안 눈 먼 상태에 있던 내담자

44) Berg & Steiner,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해결중심상담』, 37-39.

45) Morgan, 『이야기치료란 무엇인가?』, 21-22.

46)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113.

47) Powlison, 『성경적 관점으로 본 상담과 사람』, 71.

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기 위한 메시아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⁴⁸⁾ 그러나 상담자와 함께 내담자 또한 성령의 역사의 인생 이야기를 품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자기 인생에 역사하신 순간들을 자신이 직접 뽑아 낼 수 있는 ‘작가’로서 존중되어야 하지 않겠는가?⁴⁹⁾ 얼마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는가? 내담자 또한 이들 중 한 명으로 대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한다.

3) 외부 사람들을 상담에 참여시킴

이야기와 사회구성주의를 사용하는 이야기치료자들은 사회가 내담자들에게 끼치는 영향과 함께 개인적인 삶이 전체 문화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한다. Jill Freedman과 Gene Combs는 포스트모더니즘 세계관을 치료실에 적용한 가장 극적인 예로서 반영팀의 활용을 꼽는다. 반영팀이란 상담자나 내담자가 아닌 제3자들로 구성된 외부인들로, 내담자의 상담 내용을 들은 후에 내담자와 자리를 바꿔 내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들이 느끼고 배운 것들을 서로 나누는 일을 한다. 반영이 끝난 후에는 다시 내담자와 자리를 바꾼다. 이는 이야기치료자들이 상담 장면에서 일어나는 대인관계적 영향력의 다중적이고 다방향적인 본질에 대해 배우게 된 이후 대화를 통한 다양한 시각이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직접 경험하여 알려준 것이다.⁵⁰⁾

48) 전요섭 외 11인,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 46-47; Adams, 『완전한 변화를 위하여』, 118. Adams는 상담자의 성경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상담자는 상담 중에 성경을 사용해야 하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설교자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9) Johnson, 『기독교심리학』, 323-324. Johnson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중주체적 기능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 개인의 행위에 대한 일련의 이야기는 신비로운 이중 저자의 결과이며, 인간의 배우 ‘공동 극작가’의 결정을 통해 하나님의 ‘세상-연극’에서 개인적 ‘하부 줄거리’의 실현”이라고 말한다.

50) Freedman & Combs, 『이야기치료』, 41-44, 56, 268-269, 283. 저자들은 “우리는

Michael White는 상담자나 내담자가 아닌 외부에서 목격하는 사람인 ‘외부증인’을 상담에 초대하여 내담자의 이야기에 참여하게 하였다. 외부증인의 역할이 반영팀과 비슷하지만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삶에서 떠올리게 되는 자기 이야기를 해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청중으로 참여한 외부증인이 일으키는 상담효과는 상담자가 제공하는 것과 다르다. White는 한 사례에서 “앨리슨 가족(외부증인)의 기여는 내가 치료자로서 기여한 바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상담시간에 외부증인이나 청중이 참여할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한다. 그는 개인이 형성한 새로운 대안적 이야기를 지지하고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할 청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청중의 참여를 보조적인 수준에서 핵심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었으며, 특별히 개인의 정체성이 내적 성찰을 통해서가 아닌 사회적인 인정을 통해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그렇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때 상담자는 청중으로 하여금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내담자가 삶에서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도록 하는 데 주력한다.⁵¹⁾

반영팀으로부터 외부증인에 이르기까지 상담자를 중심에서 비켜서게 한 후에 실시했던 실험들은, 개인의 생각과 관념 또는 기억이 사람들의 사회적 교류에서 생기며 언어를 매개로 형성되는 것이라는 사회구성주의로부터 힘입은 바가 크다.⁵²⁾ 이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힘을 상담에 직접 활용한 것으로, 기존의 성격적 상담자들이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말씀 권면이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것 이상의 구체적인 상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던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간 실행이라고

가족이 거의 항상 반영 팀을 매우 가치 있게 여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말한다.

51) White, 『이야기치료의 지도』, 209-225.

52) S. McNamee & K. J. Gergen, eds., *Therapy as Social Construction*, 김유숙 역, 『심리치료와 사회구성주의』 (서울: 학지사, 2004), 25.

할 수 있다.⁵³⁾ 성경적 상담에서는 이제까지 공동체를 통해 내담자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일종의 ‘공동체의 말하기 과정’을 구성하려고 한 것이었다면, 이야기치료에서는 외부사람들에게 내담자의 이야기에 집중하도록 하는 일종의 ‘공동체의 듣기 과정’을 진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적 상담에서도 이러한 듣기 과정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포스트모던 시대의 치료적 접근들을 성경적 상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1) 이야기치료를 활용한 기존의 시도들

포스트모던 시대의 치료적 접근 중에서 특히 이야기치료는 이야기와 새로운 이야기 및 해석, 은유 그리고 공동체의 기여라는 점에서 기독교 상담자들의 관심을 끌어 왔다. 이재화와 전요섭은 기독교 상담이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면서 기독교적인 이야기들과의 연결점을 찾는 점에서 이야기치료로부터 새로운 상담유형에 대한 활용방안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기독교 상담은 설득하고 교훈하기보다는 내담자가 자신이 풀어내는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적 삶의 이야기와 융합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말한다. 이들이 말하는 상담과정은, 이야기의 재해석에 초점을 두고 내담자의 진정한 인생이야기를 분석하여 변모 혹은 재구성 또는 새롭게 이야기를 하도록(re-tell) 도와주는 것이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만을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적용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 말한다.⁵⁴⁾ 그러나 이들의 관점은 이야기치료 핵심의 중요부분을 놓치고 있

53) Adams, 『목회상담학』, 77-78; Lane & Tripp,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162.

54) 이재화·전요섭, “이야기상담의 이해와 기독교상담 방안”,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8권(2015): 264-291.

다. 이야기치료의 주된 작업은 엄밀히 말해서 현재 이야기의 재해석이기 보다는 전체 인생사건에 대한 ‘재배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있었던 그러나 주목받지 못했던 부수적인 성공 이야기들을 다시 연결하는 작업이지 실패한 이야기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이귀연은 룯기를 통해 이야기치료를 성경적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녀는 Paul D. Tripp의 ‘사랑하라, 알라, 말하라, 행하라’를 이야기치료의 요소들과 비교하며 룯기의 세세한 부분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치료과정을 비교한 것은 단순한 대입에 그쳐 둘의 본질적인 차이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였다. 나오미를 중심으로 이야기치료 개념에 대입한 과정은 지나치게 표면적인 사건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의미영역의 탐색을 통한 내담자의 지향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였다.⁵⁵⁾ 나오미의 대안이야기는 보아스도 아니요 가문의 땅의 회복이나 아기의 탄생도 아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았을 때 자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인생인지 알아차리고 이후의 결과에 관계없이 전진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치료에 대입할 수 있는 주인공은 나오미이기 보다는 룯이라 할 수 있다. 그녀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의 지향점, 즉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정체성을 가지고 이후의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인생의 행보를 이어간다. 성경적 상담자는 룯의 이러한 정체성을 강화하고 개인에게서나 공동체 안에서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풍부하게 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 외에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는 가운데서도 이야기치료를 이해하고 신앙과 실제의 맥락에서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왔다. 선교사와 신학자, 교사, 상담자로서 문화적인 실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치료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지 탐구하

55) 이귀연, “이야기치료와 성경적 상담: 비판적 평가와 적용 가능성”(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 2013), 59-72.

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⁵⁶⁾ 이들의 연구는 지식의 다양한 방법론을 신앙과 연결하려는 것으로 이야기치료의 개념을 단순하게 적용하거나 부분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것과 함께 대부분 통합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2) 성경적 상담에 보충해야 할 과정, 문제발생 이전의 신앙 행보들을 ‘기억하라’

포스트모던 시대의 치료적 접근들로부터 가장 중요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내담자의 인생이야기를 다르게 들었다는 점이다. 해결중심 접근은 내담자의 미약한 성공 경험 속에 들어있는 개인적인 행동목표들에 대해 듣는다. 해결중심접근의 강점은 내담자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는 인생의 긍정적인 일과 성공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다.⁵⁷⁾ 내담자의 주관적인 성공과 효과에만 매달리는 방식은 성경이 추구하는 목표와 맞지 않지만, 문제 중심 접근들이 놓쳤던 내담자 인생의 또 다른 본질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이 있으며, 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역시 찾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성공과 실패는 성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그들의 인생은 성령께 순종했던 경험과 불순종했던 경험들이 모두 섞여있는 내용으로 말해질 수 있어야 한다.⁵⁸⁾

56) Richard Cook & Irene Alexander, eds., *Interweavings: Conversations between Narrative Therapy and Christian faith*, 최민수 역, 『이야기치료 기독교를 만나다』 (서울: 그리스심, 2011), 6-10, 14-39.

57) Gerald B. Sklare, *Brief Counseling That Works*, 송현종 역, 『단기상담』 (서울: 학지사, 2007), 20.

58) Vaughan Rees, *The 'Jesus Family' in Communist China*, 송용자 역, 『중국의 예수 가족 공동체 교회 이야기』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5), 25-26. 이 책의 내용은 영국의 한 의료선교사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로 공산당 치하의 중국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도난사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공산주의자에게 공동체의 한 형제는 간단히 대답했다. “만약 누구든지 마음속에 주 예수님이 계시면 그는 절대로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상담에서 이들에게 문제와 죄된 동기에 대해서만 묻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던 경험들을 탐색하지 않는다면 이는 심각하게 치우친 것이다.

이야기치료의 내담자 탐색은 단순한 성공경험에서 그치지 않고 내담자가 추구하는 인생의 지향점들을 스스로 언급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성경적 상담이 내담자의 인생방향을 자신이나 자기충족성에 두지 않다는 점에서 이야기치료의 원리와 방법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내담자가 추구하는 인생의 지향점이 이후 내담자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한다는 관점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아야 한다. 요셉은 자기 인생 전체를 해석하기도 하였지만(창 50:20), 노예로 팔려 살았던 어두운 시기동안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창 39:9하)”라는 신앙의 지향점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했다. 다니엘은 그의 소년시절의 삶을 언급하면서 “뜻을 정하여(단 1:8상)” 그렇게 하였다고 설명한다. 자신의 인생이 향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렇게 살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공한 경험에서뿐 아니라 문제에 빠져 있는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향해 갖고 있는 지향점들이 있다. 예수께서는 세 번이나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났을 때, 죄의 뿌리를 지적하거나 파헤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 21:15-17)”고 물음으로써 듣는 사람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베드로의 ‘그리스도 중심’의 방향을 드러내신다.⁵⁹⁾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나 이런 질문을 받아야 하며 실패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 인생의 지향점을 발견하는 것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해석을 달

59) George R. Beasley-Murray, *Word Biblical Commentary John 1-21*, vol 36., 이덕신 역, 『WBC 성경주석 요한복음』 (서울: 솔로몬, 2001), 720. Beasley-Murray는 이 질문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확고하게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충성을 드러내기 위해 단언했던 말을 상기시켜준다고 풀이한다.

리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흠어져 있는 다른 방향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거기에 일관되게 흐르는 ‘의미’를 붙일 수 있을 때 가능해진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 개인적인 삶의 사건들로 확인하고 그것을 연결하여 자기 인생의 방향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상담의 주역은 성령이시라는 말의 뜻이 구체화될 것이다. 내담자로부터 그리스도를 향해 살았던 인생 경험들과 그때마다 동행하신 성령에 대해 듣는 것을 빠뜨리고 단지 말씀이나 기도, 상담자의 자질을 통해서만 성령의 역사를 추구한다면 성경적 상담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내담자는 현재 당면한 문제에 꼭 맞는 진리의 직면을 받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인생 전체에 흠어져있는 성령의 역사를 찾아내고 기억하며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 사울 왕에게 자신의 ‘중심’⁶⁰⁾을 드러낼 때도 이전에 경험했던 사건들을 언급하며 나선다.⁶¹⁾ 위기를 만난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적 상담이 더욱 성경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죄의 동기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내담자 인생의 고유한 지향점들도 찾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성경적 상담의 단계에 내담자 인생에 흠어져 있는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라’가 보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공동체 안에서 강화되는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이야기, 서로 ‘나누라’

포스트모던 시대의 치료적 접근들 중 특히 이야기치료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아닌 외부의 평범한 사람들을 중요한 치료자원으로 활용하는 실험들을 해왔다. 내담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초청된 공동체를 통해 내담자와 공동체의 구성원 서로에게 기여하는 양방향적인 이해를 나누며, 곤란

60) 김진수,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11), 175. 김진수는 골리앗과 맞선 다윗에 대해 “독자들은 그의 언행(言行)에서 남다른 ‘중심’(?)을 소유한 자의 면모를 발견한다”고 언급한다.

61) 사무엘상 17:34-36.

에 빠진 자신의 인생이야기로부터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배웠다고 말하는 낯선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게 된다.⁶²⁾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상담실에 왔는데 상담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 자기 인생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경험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부르심 자체가 공동체로의 부르심이다.⁶³⁾ 성경에서 지역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모범으로 세워졌으며, 중요한 사회적 지지의 장소로서 그려지고 있다(롬 12:10, 13, 16-17; 살전 5:14).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은 다른 사람의 안녕증진을 위한 행위를 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자가 진단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성숙시켜 나갈 수 있다. 개인과 공동체는 삶과 성장에 있어서 함께 연결되어 있다.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다루기 힘들고 받아들일 수 없는 제한들을 언급한다. 이를테면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전 5장).⁶⁴⁾ 이것은 명확하게 인간관계의 제한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성경 중심적인 기독교 공동체의 특성을 잘 드러낸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내담자의 지향점이 무엇이든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이야기치료의 공동체 활용을 무조건 수용할 수 없다. 성경적 상담의 공동체 활용은, 다루는 내용에 있어서 이야기치료 접근과 통합할 수 없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공동체 구성의 근거와 목적이 또 다시 '하나님'과 '자신'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적 토대 위에서 이야기치료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면 공동

62) White, 『이야기치료의 지도』, 172-176, 226-236.

63) Jim Wallis, "Community," *Sojourners* (October 1981): 25. Wilson, 『상담과 공동체』, 87에서 재인용. Wallis는 "회심이란 한 가지 종류의 공동체에서 다른 종류의 공동체로 이동하거나, 공동체가 없던 상태에서 공동체가 있는 상태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64) Johnson, 『기독교심리학』, 60.

체의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을 구체화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상호작용을 상담과정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내담자는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도움을 주기도 하며, 공동체 역시 돌봄을 제공하지만 하지 않고 내담자로부터 배우고 자신들도 변화의 원동력을 체험함으로써 ‘서로, 피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돌봄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성경적 상담에서 이를 구체화하려면 개인상담 중이라도 공동체로 모이는 회기를 계획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⁶⁵⁾ 이것은 공동체로 하여금 평신도상담자⁶⁶⁾로서 기능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내담자와 공동체 간의 듣기와 말하기를 구조화하라는 것이다. 교회 역사를 통해 발전하게 된 현대 교회의 ‘소그룹’⁶⁷⁾은 성경적 상담이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공동체로서 기능할 최적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개인 상담 중 어느 때라도 소그룹을 초대하여 내담자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초대받은 공동체의 인생이야기로 답해주는 과정을 통해 함께 나누는 기회를 갖는 것이 가능하며, 성경적인 목표를 위한 그 이상의 기능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성경적 상담자는 좋은 질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내담자와 함께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 이야기들로 서로 대답할 수 있는 지향점 질문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적용의 핵심은, 성경적 상담에 공동체의 사람들을 초청하여 내담자와 함께

65) Freedman & Combs, 『이야기치료』, 282-287. 저자들이 속해 있는 센터에서 실시하는 반영팀 사용은 특정 면담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고, 임시로 사용될 수도 있으며, 혹은 치료 시작부터 종료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66) Siang-Yang Tan, *Lay Counseling*,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편집부 역, 『평신도 상담자』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1997), 91-96.

67) John Mallison, *The Small-Group Leader*, 신재구 역, 『생동감 있는 소그룹 매뉴얼』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5), 21. 소그룹은 지역교회 회중의 공동체적 삶을 구성하는 기본구조로, 크리스천의 개인적 삶과 공동체적 삶을 발전시키는 데 기초가 된다. 기독교회가 부흥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했던 소그룹이 이 시대에 다시 발견되고 있다.

서로 나누는 단계를 마련하여서 내담자가 지향하고 있으며 의지해야 할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이야기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로 ‘나누라.’

Ⅲ. 닫는 글

성경적 상담은 상담의 원리와 방법 그리고 필요한 개념들을 갖춰 상담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성경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성경의 충분성은 세밀하게 정의되어 피조물로서의 인간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원천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상담 모델의 출처로서 성경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지고 이해력이 높아진 만큼 상담의 대상이 되는 내담자에 대한 인식과 이해력이 성경적으로 균형 있게 갖춰져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는 성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경적 상담자들의 이해가 시대적 영향아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문제를 갖고 상담에 찾아온 그리스도인은 그 문제로 인해 다시 개종해야 할 비신자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신자이다. 그는 현재 신앙의 여정 중에 있으면서 문제를 만난 것이다. 내담자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놓쳐 버리면 성경적 상담에서 성경적인 중요한 개념들이 부분적으로 적용되거나 피상적으로 강조되는 부조리가 발생한다. 실제 상담에서 내담자의 인생 여정은 전체로 파악되지 않고 그의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내담자에 대한 일부 사각지대를 만드는 현상이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문제를 그리스도인답게 처리하는 것은 중요하다. 성경적 상담자들이 이를 ‘마음’의 자리에서 다루며 뿌리에 숨어 있는 우상숭배의 동기를 드러내는 것은 적절하고 필수적이다. Tripp이 주님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제안한 ‘사랑하라, 알라, 말하라, 행하라’의 네 가지 요소들은 상담과정을 위한 성경적 방법의 핵심들을 드러낸다. 이는 실제 상담에 유용하며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구속적 관점을 표현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고 신앙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보여주고 있으며 교회 역사에서 계속 실행해 왔던 것을 더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성경적 상담이 더욱 성경적이 되기 위해 부단히 검토할 것이 있음을 의미한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치료적 접근으로서 이야기치료는 해석의 치료일 뿐만 아니라 수집의 치료이다. 그동안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인생의 어떤 순간들을 찾아내고 엮어서 내담자 스스로가 일관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기본적인 전제나 이행방식에 있어서 성경과 일치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험과 다듬어진 상담과정은 이미 성경에 들어있어 흔하게 접해왔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소들을 보게 하며 그동안 성경적 상담에서 지나쳤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알아차리게 하는 자극제의 역할을 한다.

이런 시각으로 본 연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은, 현재의 성경적 상담에 빠져있다고 판단되는 그리스도인 내담자의 인생여정, 특히 문제에 초점을 두느라 소홀히 다뤘던 인생 경험들과 지향점 그리고 상담자나 내담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로서의 공동체가 제공하는 직접적인 치료역할이다. 내담자의 전체 인생은 그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 위해 걸어왔던 여정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독특한 지향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들이 흩어져 있다. 이것을 수집하지 않고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은 내담자를 신앙인으로 또 그의 인생을 이끄신 성령의 역사를 구체적인 것으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게 만든다. 성령께서 상담의 주역이라는 것은, 내담자의 인생여정 전체 안에서 상담시점을 볼 수 있을 때에야 더 명확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공동체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성령의 역사로 ‘듣기’를 할 수 있으며, 내담자의 신앙의 지향점을 인정하고 이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성경적 돌봄의 개념을 실제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적 상담이 더 성경적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의 순간들을 수집하기 위해 문제에 가려진 인생경험을 ‘기억하라’의 단계가 필요하며, 공동체의 지지와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 서로 ‘나누라’의 단계가 보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 김수연. “기독교상담에서의 이야기 해석”.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8권(2008): 101-122.
- 김준수. 『마음의 치유』. 서울: 디모데, 2008.
- 김진수.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11.
- 서철원. 『하나님의 구속경륜』.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9.
-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IVP, 2005.
- 안경승. 『지혜로운 돌봄』. 양평: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13.
- 이귀연. “이야기치료와 성경적 상담: 비판적 평가와 적용가능성”.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 2013.
- 이재화 · 전요섭. “이야기상담의 이해와 기독교상담 방안”.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8권(2012): 264-294.
- 전요섭 외 11인.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 서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2004.
- 황규명.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 서울: 바이블리더스, 2013.
- Adams, Jay E. *The Christian Counselor's Manual*. 정정숙 역. 『상담학개론』. 서울: 베다니, 1994.
- Adams, Jay E. *How to Help People Change*. 이승재 역. 『완전한 변화를 위하여』. 서울: 은혜출판사, 1995.
- Adams, Jay E. *Competent to Counsel*. 정정숙 역. 『목회상담학』.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1.
- Bannink, Fredrike. *1001 Solution-Focused Questions*. 조성희 · 신수경 · 이인필 · 김은경 역. 『1001가지 해결중심 질문들』. 서울: 학지사, 2015.
- Benner, David G. *Strategic Pastoral Counseling*. 전요섭 역. 『전략적 목회 상담학』. 서울: 은혜출판사, 1991.
- Berg, Insoo Kim & Therese Steiner. *Childrens Solution Work*. 유재성 · 장은진 역.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해결중심상담』. 서울: 학지사, 2009.
- Beasley-Murray, George R. *Word Biblical Commentary John 1-21*. vol. 36. 이덕신 역. 『WBC 성경주석 요한복음』. 서울: 솔로몬, 2001.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1. Ed. John T. McNeill. 성서서원 편집부 편역. 『새 영한 기독교강요 상』. 서울: 성서

서원, 2005.

- Cook, Richard & Irene Alexander. Eds. *Interweavings: Conversations between Narrative Therapy and Christian Faith*. 최민수 역. 『이야기 치료 기독교를 만나다』. 서울: 그리심, 2011.
- De Shazer, Steve, Yvonne Dolan, Harry Korman, Terry Trepper, Eric McCollum, & Insoo Kim Berg. *More Than Miracles*. 한국단기가족 치료연구소 역. 『해결중심 가족치료의 오늘』. 서울: 학지사, 2011.
- Edwards, William R. “Redirecting the Church’s Drama.”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28, no. 2(2014): 59–69.
- Freedman, Jill & Gene Combs. *Narrative Therapy*. 김유숙 · 전영주 · 정혜정 역. 『이야기치료』. 서울: 학지사, 2009.
- Hurding, Roger. *The Bible & Counseling*. 문희경 역. 『성경과 상담』.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3.
- Johnson, Eric L. *Foundation for Soul Care*. 전요섭 외 역. 『기독교심리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 Lane, Timothy S. & Paul D. Tripp. *How People Change*. 김준수 외 역.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9.
- Mallison, John. *The Small-Group Leader*. 신재구 역. 『생동감 있는 소그룹 매뉴얼』.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5.
- MacArthur, John. *The Truth War*. 신성욱 역. 『진리전쟁』.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 McMinn, Mark R. & Timothy R. Phillips. Eds. *Care for the Soul*. 전요섭 외 공역. 『영혼돌봄의 상담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 McNamee, Sheila & Kenneth J. Gergen. *Therapy as Social Construction*. 김유숙 역. 『심리치료와 사회구성주의』. 서울: 학지사, 2004.
- Morgan, Alice. *What is Narrative Therapy?*. 고미영 역. 『이야기치료란 무엇인가?』. 서울: 청목출판사, 2015.
- Powlison, David. *Seeing with New Eyes*. 김준 역. 『성경적 관점으로 본 상담과 사람』. 서울: 그리심, 2009.
- Powlison, David. “How Does Sanctification Work? Part 2.”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27, no. 2(2013): 35–50.
- Rees, Vaughan. *The ‘Jesus Family’ in Communist China*. 송용자 역. 『중국의 예수가족 공동체 교회 이야기』.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5.

- Sklare, Gerald B. *Brief Counseling That Works*. 송현중 역. 『단기상담』. 서울: 학지사, 2007.
- Stillman, John R. *Narrative Therapy Trauma Manual: A Principle-Based Approach*. St. Louis Park, MN.: Caspersen, 2010.
- Stott, John R. W. *Christ the Controversialist*. 윤중애 역. 『변론자 그리스도』. 서울: 한국성서유니온, 1997.
- Tan, Siang-Yang. *Lay Counseling*.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편집부 역. 『평신도 상담자』.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1997.
- Tripp, Paul D.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황규명 역.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 서울: 디모데, 2007.
- Welch, Edward T. “Ten Ways Ordinary People Can Help Those with Psychiatric Problems.”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28, no. 2(2014): 22–38.
- White, Michael. *Maps of Narrative Practice*. 이선혜 · 정슬기 · 허남순 역. 『이야기치료의 지도』. 서울: 학지사, 2010.
- Wilson, Rod J. K. *Counseling and Community*. 김창대 역. 『상담과 공동체』. 서울: 두란노, 1997.
- Yalom, Irvin D. *The Gift of Therapy*. 최응용 · 천성문 · 김창대 · 최한나 역. 『치료의 선물』.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7.

【 Abstract 】

A Study on a Effective Application of Biblical Counseling through Therapeutic Approaches of Postmodern Era

Keum Soon Choi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areas for the biblical counseling to become more biblical. I believe that what we need to keep examining is not the sufficiency of the Bible but the periodical limitations of the counselors. The language of the counselors has its periodical background and motivations, spoken in the paradigm of changing era. The biblical counseling has focused on the client's mind, trying to find the root of the sin and make the person repent and change. In actual counseling, the Work of the Spirit has depended more on the Bible or the tool of counselors than making close connections with the client's life. And the community has actually been used weakly while emphasizing it. On the contrary, the therapeutic approaches in postmodern era focus mainly on the journey of client's life and suggest the processes where multi-directional effects of the Participants are used. This is more of collection than interpretation, focusing on what to listen to.

This study examines the listening language of the biblical counseling and the therapeutic approaches of postmodern era. The biblical counseling becomes more biblical in that we listen to the client's life as the history of the Work of the Spirit, making it more abundant in the community.

Key words: Biblical counseling, Bible, the work of the Spirit, the life of a counselee, the participants